

# 지구촌 '5G MEC' 잇는 글로벌 표준, SKT가 이끈다

(모바일 에지 컴퓨팅)

ITU-T서 국제표준화 과제로 채택  
5G MEC 이용자·개발자 편의 향상  
전세계 어디서나 초저지연 서비스

SK텔레콤이 전 세계의 5G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을 연동하는 기술 표준 수립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된 ITU-T 회의에서 자사가 제안한 5G MEC 연동 플랫폼 관련 기술이 국제표준화 과제로 채택됐다고 16일 밝혔다. 국제표준화 과제로 채택된 기술은 ITU-T내 수십여 개 국가의 논의를 거친 뒤 글로벌 표준이 된다.

SK텔레콤은 5G MEC 기술과 서비스의 범용성 향상과 기술 생태계의 빠른 발전을 위해 '연합 멀티 액세스 에지 컴퓨팅' 표준 제정을 ITU-T에 제안해 승인받았다. '연합 멀티 액세스 에지 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된 ITU-T 회의에 참석한 이종민 테크이노베이션그룹장. /SK텔레콤

퓨팅'은 각 통신사 내 5G MEC 시스템을 연동시킬 수 있는 별도 채널을 구축해 서비스 제공자가 지역, 통신사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5G ME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번 표준은 5G MEC 이용 고객과

서비스 개발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5G MEC 연동이 가능해지면, 소비자는 지역이나 이용 통신사에 구애받지 않고 5G MEC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서비스 개발자는 동일한 서비스를 각 통신사의 5

G MEC 시스템에 최적화하기 위한 과정을 줄여 개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SK텔레콤은 ITU-T내 'AI, 빅데이터,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5G MEC 규격'을 연구하는 SG11 Q7(스터디그룹11 7연구반)에서 2022년 국제표준 완성 목표로 '연합 멀티 액세스 에지 컴퓨팅' 기술의 구조, 신호 규격, 요구 사항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SG11 Q7의 라포처로 임명된 SK텔레콤 이종민 테크이노베이션그룹장이 이끌어 갈 예정이다. 라포처는 표준 실제 권고안 개발 그룹의 모든 이슈를 총괄하는 표준 작업반의 리더다.

SK텔레콤은 5G기반 에지 클라우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통신사로서 5G MEC 생태계의 빠른 발전을 위해 표준 수립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연구 분야에서도 전 세계 이통사들과 초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일 GSMA 및 도이치텔레콤, EE, KDDI, 오렌지, 텔레포니카, 텔레콤 이탈리아, 차이나 유니콤, 싱텔, NTT도코모 등 9개 글로벌 통신사와 5G MEC 연동에 대한 실증 연구 그룹 '텔레콤 에지 클라우드 TF'를 발족했다.

지난 1월에는 아시아태평양 통신사 연합회 '브리지 얼라이언스' 소속 통신사인 싱텔, 글로벌, 타이완모바일, HK T, PCCW글로벌 등 5개사와 함께 '글로벌 MEC TF'를 발족했다.

SK텔레콤이종민테크이노베이션그룹장은 "이번 표준 채택은 고객에게 세계 어디서나 5G MEC 기반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SK텔레콤은 MEC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표준 개발과 이용 사례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현대·기아차, 서비스협력사에 22억 지원

3개월동안 블루핸즈·오토큐  
가맹금 감액, 전액 면제키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협력사를 위해 총 22억원 규모의 가맹금 지원에 나선다.

현대·기아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 손실을 겪고 있는 서비스협력사 블루핸즈와 오토큐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가맹금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비스협력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맹금 감면을 결정했다.

3월에는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의 블루핸즈 143개소와 오토큐 73개소의 가맹금을 전부 면제하고, 이외 지역의 블루핸즈 1231개소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오토큐 727개소의 가맹금은 50% 감액한다.

오는 4월과 5월에는 전국 블루핸즈와 오토큐 가맹금을 50% 감액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현대차는 3개월 동안 약 14억1000만원, 기아차는 약 8억2000만원에 달하는 가맹금을 서비스협력사에

지원하게 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비스협력사의 어려움에 공감해 3개월 동안 가맹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현대차그룹은 서비스협력사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현대차그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0억 원을 기탁했으며, 협력사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 부품 협력업체에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 지원했다.

이와 함께 경북 소재 그룹 연수원 두 곳을 코로나19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혈액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을 다방면으로 이어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는 영국 존 루이스 본사 1층에 스타일러 체험존을 운영한다. /LG전자

## LG 스타일러, 영 프리미엄 백화점 상륙

존 루이스에 체험존 등 판매 본격화

LG전자 의류관리기 스타일러가 영국 공략을 본격화한다.

LG전자는 지난9일부터 20일까지 영국 런던 '존 루이스' 본사 1층에 LG 스타일러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루이스 백화점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스타일러 판매도 시작했다.

존루이스는 영국에서 프리미엄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다. 다음달 백화점에 스타일러를 입점시킬 예정이다. 스

타일러 출시에 맞춰 홈페이지에 '의류관리기' 카테고리를 추가하기도 했다.

영국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교복 문화가 자리잡고 있고, 트렌치 코트와 클래식 수트로 대표되는 복식 문화와 수시로 비가 오는 날씨 영향 등으로 의류관리기 수요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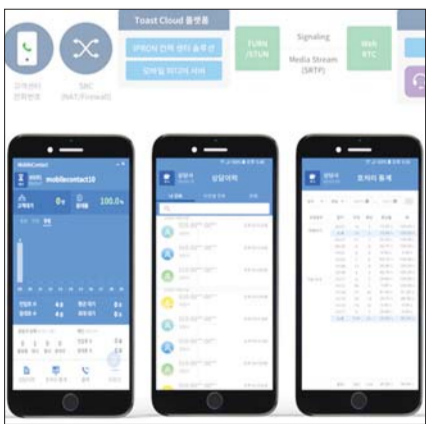
이에 따라 LG전자는 독일과 스웨덴 등에 이어 유럽에서 5번째로 영국에서 스타일러를 출시하게 됐다. 전 세계에서는 15개 국가에서 스타일러를 판매 중이다. /김재운 기자 juk@

## NHN, 재택근무 가능한 콜센터 솔루션 무상지원

'모바일 컨택' 4월30일까지 지원

NHN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자사 클라우드 기반 콜센터 솔루션 '모바일 컨택'이 코로나19 확산에 집중 대응하며 고객센터 운영 기업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바일 컨택은 NHN의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토스트'의 인프라를 통해 제공하는 콜센터 솔루션이다. 모바일 및 PC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콜센터를 구성해 언제 어디서나 고객 문의에 대응할 수 있어 재택근무에 적합한 고객센터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홈페이지 신규 방문자가 60% 이상 증가하고, 일평균 가입자는 약 세 배 늘었다.



NHN 재택근무 콜 상담 솔루션 '모바일 컨택'.

우선 NHN은 업데이트를 통해 자연스러운 자동 응답 서비스(ARS) 음성 안내에 필수인 TTS(문자-음성전환)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하는 멘트를 직접 녹음해 파일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추

가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도 자택에서 안정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동시통화회선을 두 배 증설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바일 컨택의 라이선스 사용료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모바일 컨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사용하는 대표번호 그대로 1일 이내에 모바일 및 PC 앱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NHN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센터 운영 기업에게 고품질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재택근무 시에도 기존 고객센터의 전문 이미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 두산솔루스, 1000억대 전지박 공급계약

글로벌 배터리업체와 4년 장기계약

두산솔루스의 헝가리법인 DCE가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와 전기차 배터리용 전지박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이며, 계약금액은 1000억원대 규모다.

두산솔루스의 전지박 장기공급 계약은 지난해 말 또 다른 배터리 업체와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로써 두산솔루스 헝가리 법인은 공장 준공도 하기 전에 연간 생산량(CAPA) 1만 톤의 약 80%에 해당하는 전

지박 물량의 공급처를 확보하게 됐다.

전지박은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에 들어가는 얇은 구리박으로 그 두께는 머리카락의 약 15분의 1 수준으로 얇다. 배터리에서 전류가 흐르는 통로로 쓰인다. 두산솔루스의 전지박은 강도와 연신(늘림)의 특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두산솔루스는 서킷 포일 록셈부르크(CFL)를 지난 2014년에 인수하면서 전지박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두산솔루스는 연간 1만 톤 규모의 생산규모를 시장 수요에 맞춰 5만 톤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